

벤처·대기업 상생의 진수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SK텔레콤 사례를 눈여겨보자. SK텔레콤은 협력업체와 개방적 협업 시스템인 오픈투유(Open2U)를 구축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다. 그 좋은 사례가 지난 8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'Open Idea' Festival'이다. 여기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이 12월 10일 열렸다. 그 현장을 소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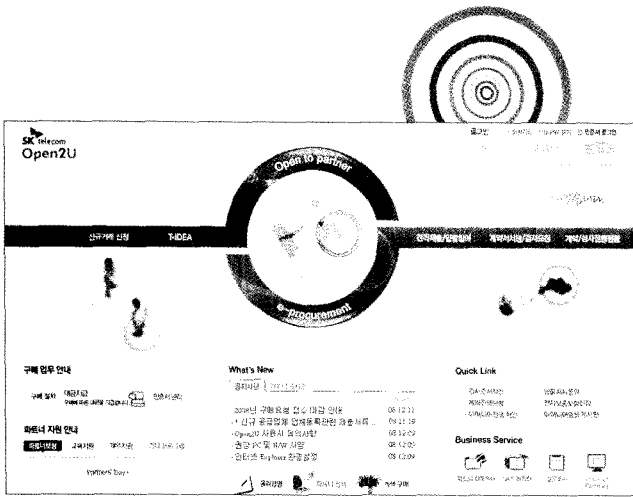


상생의 진수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
SK텔레콤 사례를 눈여겨보자

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'Open Idea' Festival
가 열려요

SK텔레콤, 협력업체 아이디어
공동 사업화 추진





“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쟁력이 곧 SK텔레콤 경쟁력의 핵심”



중소협력업체 ‘Open Idea* Festival’ 우수 아이디어 시상

SK텔레콤 협력업체들의 아이디어뱅크들이 12월 10일 SKT 본사에 모두 모였다. SK텔레콤이 지난 8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‘Open Idea* Festival’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기 때문이다. IT 및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K텔레콤이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Open Idea* Festival’에는 총 47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고, 전문가 및 지적재산권 심사 등을 거쳐 33건의 제안을 최종 선정해 시상식을 거행하게 됐다.

SK텔레콤은 이번에 수상한 대상 및 최우수 아이디어 4건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에 있는데, 이들 협력사는 ▲쥬엔텔스(대표 심재희), ▲유엔젤(주)대표 최충렬, ▲비즈위즈커뮤니케이션(대표 박재성), ▲쥬디바인인터랙티브(대표 임종식) 등 4개 업체다. 대상을 수상한 쥬엔텔스에게는 3,000만 원을, 최우수상을 받은 유엔젤(주) 등 3개사에게는 각 1,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. 또한 SK텔레콤 우수상 9개 업체에는 각각 300만 원, 장려상 20개 업체에게는 각각 100만 원 등 33개 수상 기업에 총 1억 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.

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“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쟁력이 곧 SK텔레콤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파트너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인 오픈투유를 구축해 운영 중”이라며, “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,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이뤄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중소 창의적 아이디어 상시 제안 ‘Open2U(오픈투유)’ 가동

Open2U(오픈투유)는 SK텔레콤이 국내 중소·벤처기업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상시 제안받는 사이트(<http://open2u.sktelecom.com>)로, 지난 7월 오픈됐다. 이 사이트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개방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상생경영 확대와 IT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됐다. 또 SK텔레콤은 오픈투유 상시 운영을 통해 웹2.0 환경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호 선순환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오픈투유를 통해 발굴된 중소·벤처기업의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▲아이디어 구매 ▲사업화 자금 지원 ▲공동 개발 ▲사업성과 보상 등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.

현재 이 사이트는 운영 4개월여 만에 1,700여 업체가 회원에 가입한 것을 비롯해 500여 건의 제안과 700여 건의 신규거래 신청이 이뤄지는 등 협력업체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. 이밖에도 SK텔레콤은 오픈투유 사이트에 전자 구매 기능을 강화하고,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, 헬프 데스크를 통해 업체의 문의와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등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